

제목: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

새해를 시작 하면서 우리는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각오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각오가 필요할까요?

- 1) 얽매이기 쉬운 죄를 _____ 버려야 합니다
- 2) 당한 _____ 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 3) _____ 하지 말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12월 19일 성탄주일)	
십일조	
주일	
성탄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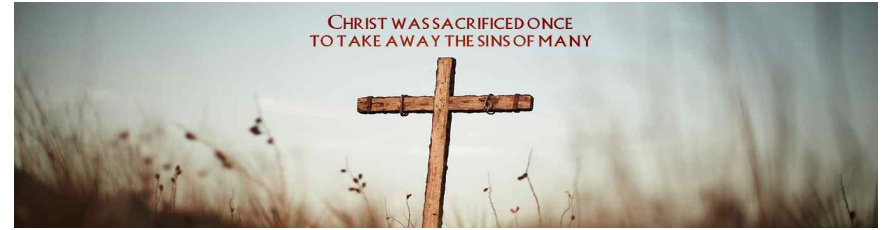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Hebrews 12: 1-2 신약 366 페이지 Presider
-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김성민 목사
 Message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당: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훌륭한 그 장로님)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일을 하던 분이시다. 그런데 장로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끔 수요일예배와 새벽기도회에 빠진다. 그 당시 나는 그분을 생각하며 열심히 없는 말만 무성한 장로님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도왔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다. 그러면서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그분을 알아 가면 갈수록 말만 무성한 사람도 아니요 열심히 없던 분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그분처럼 일하며 신앙 생활하는 입장에서 서 있어보니 그분이 하셨던 헌신이 최선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늘 직원들에게 시달리면서 준비에 준비를 거듭해야 사업이 되며 자신이 가 있어야 할 시간에는 영락없이 그 자리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교육을 위하여 여기저기를 운전하다보니 하루 잠 자는 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한 최선의 사나이 장로님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그것도 모르고 나의 마음 한편에서 그분에게 더 강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도록 간접적으로 고상하게 요구하고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후 내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아니면 나의 제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에 교회 안에서만 있으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으로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심으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있으라는 요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 여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천국을 예비함이고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던가? 무엇이든지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있어보면 아는 것이고 특별히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장로님과 지금도 대화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 생각이 다르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장로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 가슴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그분과 더욱 가까이 사귀며 기도하고 위하여 기쁨으로 함께 신앙을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4-5절) 라고 하신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에 휩쓸린 거짓이 페인트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가? 하나님을 최선으로 여기며 최선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나누는 것이 교회교육이고 가르침이며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아닌가?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2022년 달력

2022년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한 가정당 2권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큰 것 1부와 작은 것 1부)

5. 생명의 삶

2022년 1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받아 가셔서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